

▶ 달러/원 주간 전망

• 경제지표 확인 구간과 변동성

서울, 9월11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전후해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10-1,345원이다.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굳건한 전망 속 달러지수는 지난주까지 8주 연속 상승했다. 이 같은 강달러 여건에서 달러/원 환율은 1,330원대로 레벨이 한 단계 올라와 거래되고 있다. 물론 연고점이 포진해 있는 1,340원대의 진입은 녹록지 않지만, 대외 여건 따라 틈틈이 환율의 상승 시도가 뒤따르기는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위안 약세가 잘 꺾이지 않는다. 역외 달러/위안은 중국당국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7.3위안 저항을 뚫어내며 전고점인 7.37위안 상향 돌파를 코 앞에 두고 있고, 역내 달러/위안은 2007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중국 정부로부터 이런저런 부동산 완화 대책이 나오지만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글로벌 달러나 미국 채권금리에서 큰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위안 약세 기조가 되돌려질 여지가 현재로선 잘 엿보이지 않는다.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연고점을 가시권에 둔 채 긴장감 있는 거래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미국 물가지표를 전후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고물가, 고금리 전망 속 위험자산과 통화들이 약세 압력을 받고 있는 만큼 8월 미국 물가 데이터는 시장의 단기 방향성을 결정지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경제 연착륙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8월 소매판매 결과도 관심이다.

또한, 주 후반에 발표된 중국 핵심 경제지표에 앞서 주중 중화권 증시와 위안 움직임에 따른 변동성은 여전히 경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달러/원 장중 수급은 예상보다 한 쪽으로 쏠리지 않는 것을 보이지만, 그때 그때 수급 따라 환율의 움직임은 커지곤 한다. 고점 대기매물과 당국 경계가 상단 저항을 만들고, 역외와 커스터디 매물이 하단을 지지하는 팽팽한 대립 관계 속에서 수급 무게의 중심추가 어떻게 흔들릴지가 원화에 있어서는 최대 관심사다.

이른 성적표이긴 하지만 10일 기준 수출입과 무역수지 잠정치들 통해 9월 수출 경기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주중에는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었는데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금리 동결 전망이 조금 더 우위다.

▶ 주간 국내외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9월11일(월)

- ⊙ 관세청: 9.1~10일 수출입 현황
- ⊙ 한국은행: 한·미 금리 동조화 현황 및 평가 (BOK이슈노트 2023-25호) (12:00)

9월12일(화)

- ⊙ 기획재정부: 부총리 IDB 총재 면담 및 협조요자 서명식 (08:40)
- ⊙ KDI: KDI FOCUS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 (12:00)
- ⊙ 한국은행: 2023년 8월 이후 국제금융 · 외환시장 동향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Fitch 연례협의단 면담 (14:00)
- ⊙ 한국은행: 2023년 제16차(8.24일 개최, 통방)금통위 의사록 공개 (16:00)

9월13일(수)

- ⊙ 한국은행: 2023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 (06:00)
- ⊙ 통계청: 2023년 8월 고용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2023년 8월 고용동향 분석 (09:00)
- ⊙ 한국은행: 2023년 7월 통화 및 유동성 (12:00)
- ⊙ 한국은행: 2023년 8월중 금융시장동향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한-아프리카경제협력(KOAFEC) 장관회의

9월14일(목)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인천신항 수출현장 방문 (09:00)
-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9월호) 발간 (10:00)
-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10:00, 비통방)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전국세관장회의 (10:30)
- ⊙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9월) (12:00)
- ⊙ 기획재정부: '23.9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9월15일(금)

-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08:00)
- ⊙ 기획재정부: 2023년 9월 최근 경제동향 (10:00)
- ⊙ 기획재정부: 2023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11: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9월11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9월8-15일		중국	총통화(M2) 공급 증가율 YY	8월	10.7%	10.7%
9월8-15일		중국	위안화 신규대출	8월	1,200.0B	345.9B
9월11-18일		중국	FDI (YTD)	8월		-4.00%
9월12일	18:00	유로존	ZEW 서베이 기대지수	9월		-5.5
9월12일	19:00	미국	NFIB 기업낙관지수	8월		91.90
9월13일	08:00	일본	로이터 단칸 제조업지수	9월		12
9월13일	08:50	일본	기업상품가격지수 MM	8월	0.1%	0.1%
9월13일	18:00	유로존	산업생산 MM	7월	-0.7%	0.5%
9월13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9월8일 주간		183.6
9월13일	21:30	미국	CPI MM, SA	8월	0.6%	0.2%
9월14일	03:00	미국	연방예산	8월		-221.00B
9월14일	08:50	일본	기계류주문 MM	7월	-0.9%	2.7%
9월14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9월4일 주간	226k	216k
9월14일	21:30	미국	PPI MM	8월	0.4%	0.3%
9월14일	21:30	미국	소매판매 MM	8월	0.2%	0.7%
9월15일	10:30	중국	주택가격 YY	8월		-0.1%
9월15일	11:00	중국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YTD)YY	8월	3.3%	3.4%
9월15일	11:00	중국	산업생산 YY	8월	4.0%	3.7%
9월15일	11:00	중국	소매판매 YY	8월	2.8%	2.5%
9월15일	18:00	유로존	노동비용 YY	2분기		5.0%
9월15일	21:30	미국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9월	-10.00	-19.00
9월15일	21:30	미국	수입물가 MM	8월	0.3%	0.4%
9월15일	21:30	미국	수출물가 MM	8월	0.3%	0.7%
9월15일	22:15	미국	산업생산 MM	8월	0.1%	1.0%
9월15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9월	69.2	69.5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9월11일 (월)

- ⊙ 휴 필 영란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켄트인빅타상공회의소 패널 토론 참석 (오후 5시)
- ⊙ 캐서린 만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 캐나다에서 연설 (12일 오전 8시)

9월14일(목)

- ⊙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결정 (오후 9시15분),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기자회견 (오후 9시45분)

9월15일(금)

- ⊙ 뉴욕 연방은행, 9월 엠파이어 서베이 결과 (오후 9시30분)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유로그룹 회의 및 기자회견 참석 (오후 6시45분)

▶ 금주 세계 주요 이슈

⊙ ECB 금리 결정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상이 당연했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

지난해 10월 12% 가까이로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율은 5% 수준으로 둔화됐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경제 활동은 빠르게 둔화돼 경기침체를 신호하고, 기록적인 속도의 금리 인상이 금융 여건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레이더들은 14일 ECB 정책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40%, 동결될 가능성을 60%로 보고 있다.

정책결정권자들은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 비둘기파는 주의를 촉구하는 반면 매파들은 금리 인상 중단이 기정사실이 아니라면서도 확실하게 인상을 주장하지도 않는다.

이번 결정은 동전 던지기와도 같아 어느 방향이든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골디락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성장세는 탄력을 보이는 골디락스 기대 속에 미국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발표될 8월 미국 소비자물가, 14일 생산자물가와 소매판매가 다음 시험대가 될 것이다.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비 상승률이 전망치 0.5%를 크게 웃돌 경우 인플레 우려가 되살아나는 반면, 전망을 대폭 하회한다면 성장세가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너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초래할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1년 내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을 20%에서 15%로 낮췄다.

지금으로서는 골디락스를 믿는 이들의 생각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는 다른 문제다.

⊙ 중국 경제지표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내놓은 경기지원책에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본토 주식시장은 지난 7일 무역지표 부진에 수 주 만의 최악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전망보다 낮은 달러/위안 고시환율로 위안을 뒷받침하려는 중국인민은행의 노력에도 경제 우려로 역외 달러/위안 환율은 7.3을 넘어섰다.

모든 지표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예정돼 있다.

미국에서는 화웨이와 SMIC에 반도체 기술 공급을 차단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중국은 공무원들의 업무 중 아이폰 사용을 금지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미국과의 갈등 고조도 걱정거리다.

⊙ 영국 인플레이션

고용과 관련해 다른 나라에서는 고용 성장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영국에서는 임금이 훨씬 더 큰 문제다.

실업률이 지난해 기록한 48년 만의 최저치를 상회해 고용시장이 다소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기본급은 기록적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실질 기본급은 2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했는데,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8월 고용 데이터가 발표되는 12일 영란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억제할지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유가 급등

사우디 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연말까지 자발적 감산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브렌트유는 202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시장 여건에 따라 생산량 증감 여부를 매달 리뷰할 예정이다.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정유업체가 9-10월 정기보수에 들어가면서 수요가 줄고, 이란, 베네수엘라, 리비아의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유가 추가 상승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물가가 빠르게 둔화하길 바라는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있어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전망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유가는 연초 대비 약 17% 하락했었는데, 이제 약 4% 올랐고 계속 상승 중이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분석) - 中, 소비 되살리기 위해선 저렴한 모기지로는 부족

상하이/베이징, 9월8일 (로이터) -

중국의 최근 부동산 부양책으로 인해 개인 한 명이 지불하는 아파트 월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은 줄어들겠지만, 은행 예금 이자도 줄어들 것이다.

이는 중국이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직면한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금리를 낮추면 가계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지만, 경제 전망이 어둡고 연금 및 의료와 같은 분야에서 장기적인 개혁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동기는 적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한 자산 관리 회사 직원은 "금리 인하는 소비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정부가 최근 조치를 취하며 밝힌 목표 중 하나를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주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며 기존 모기지 금리를 인하하고 대도시의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 국영은행들이 수익 마진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금 금리를 10~25bp 인하했다.

노무라의 분석가들은 모기지 금리 인하로 대출자들이 연간 2000억~3000억위안(270억~410억달러)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또한 중국 가계의 이자 수입 감소를 경고했다. 이들은 131조4000억위안의 가계 예금에 대한 금리가 15bp 인하되면 이자 수입은 매년 1970억위안 감소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첫 주택에 대한 모기지 금리는 약 4%,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는 약 1.5%다.

노무라의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텡 루는 이는 "소득 재분배에 가깝다"며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분석가들은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있는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시도는 분명 긍정적이라고 밝혔으나, 궁극적으로 중국인의 소비를 장려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계 저축이 아닌 경제의 다른 부문에서 소비자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것이다.

ANZ의 수석 중국 전략가인 자오핑 싱은 "가장 큰 제약은 사람들의 소득"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한 소비자 신뢰도 반응은 "완만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 예금자 타격

월 모기지 상환액 감소는 예금 이자 수입 감소로 인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될 것이다.

사람들은 향후 수익을 위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특히 고용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위험을 회피한다.

상하이의 데이터 분석가인 리샤오는 낮은 금리에 불만이 있지만 은행에 돈을 계속 예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소비를 늘리기를 원하지만 궁극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예금자들"이라며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금 금리 인하는 실제로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광둥성 남부의 한 국영 기업에서 근무하는 귀모씨는 "예금 금리가 0%로 떨어지더라도" 저축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나쁘고 사람들은 자신감이 부족하다"며 "원금을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승리"라고 덧붙였다.

우한 중심부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에서 일하는 낸시 양은 자신이 돈을 쓰지 않는 주된 이유가 고용주가 2022년 연말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자 때문에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사업, 늘지 않는 소득, 모기지 상황, 자녀 양육 등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축한다"며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단독) - “은행 돈으로 집사라”... 주택기금 고갈에 정책자금 지원 공 수탁은행에 떠넘긴 정부

서울, 9월5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정부가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인 버팀목·디딤돌대출의 재원이 고갈됨에 따라 현재 수탁은행들이 재원을 마련해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금리와 대출 취급금리간 갭이 커지면서 관련 비용이 정부의 보전 한도를 넘어섬에 따라 사실상 수탁은행들이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5월 버팀목·디딤돌대출의 재원 역할을 하던 주택도시기금이 고갈됐음을 수탁은행에 알리고 수탁은행들이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 관련 대출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때부터 원래 정부 기금으로 진행하던 버팀목·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대구·부산은행이 재원 마련과 취급 모두 담당하게 됐다.

버팀목·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실행되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주택대출상품이다. 버팀목대출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전세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금리가 오르내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며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특혜성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정부가 아닌 민간 은행들이 떠맡게 된 것이다.

문제는 민간 은행에 정책자금 지원 역할을 맡기면서 일정 부분 손실도 감수하도록 한 부분이다. HUG는 은행이 직접 자금을 조달해 버팀목·디딤돌대출을 취급할 경우 일정 부분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했지만 분기별로 지원액 증가폭에 한도를 뒀다.

시장금리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우 정책자금 재원조달에 따른 손실분이 보전되지만 작년과 올해처럼 시장금리가 급등하는 경우엔 민간은행이 역마진을 감수하고 대출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4일 종가 기준 AAA 은행채 1년물 금리는 3.92%, 은행채 3년물 금리는 4.2%, 은행채 5년물 금리는 4.31% 수준이다.

지난 8월까지 디딤돌대출 금리가 2.15~3.0%, 버팀목대출 금리가 1.8~2.4%였던 만큼 HUG가 1% 수준으로 보전해준다고 해도 수탁은행들은 큰 폭의 역마진을 감수하고 대출을 진행해야 했다.

결국 HUG는 지난달 30일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금리를 0.3%p씩 인상하기로 했지만 수탁은행들이 여전히 조달금리 역마진을 감수하고 대출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A은행 관계자는 "수탁은행의 역할이라는 게 원래 대출 재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받고 취급을 하는 건데 지금은 대출 재원도 은행이 마련하는 상황"이라며 "은행별로 0.5% 정도씩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역마진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4분기처럼 자금 조달 압박이 커지면 정책자금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데 따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정책자금 대출은 HUG가 일괄적으로 수탁은행에 지시하는 상황"이라며 "은행이 스스로

재원을 사용했을 때 정부가 비용을 이차 보전해주는 것도 일괄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편집 박예나 기자)

((seunggyu.lim@thomsonreuters.com : +822 6936 1466:))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IMF, 신흥국 대상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지수에서 韓 제외... 韓 외환보유액 적절

서울, 9월5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韓 외환보유액 수준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지수(Assessing Reserve Adequacy, ARA) 발표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IMF는 정부와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ARA는 IMF가 78개 신흥국가의 외환보유액 적정성에 관해 평가하는 지수다.

한국 외환보유액은 2021년 10월 기준 4692억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꾸준하게 늘었지만, IMF ARA 결과 따라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IMF가 산정한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해서 1을 넘었지만, 2020년 0.99, 2021년 0.99, 2022년 0.97로 떨어졌다. 하지만, IMF는 외부충격과 무질서한 시장 여건에 대해 한국 외환보유액은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헤럴드 핑거 한국 미션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ARA 지표는 이머징 국가에 적용하는 도구"라면서 "한국 경제 특성을 고려하면 단기 외채 비중 등 광범위한 통화량에 기초한 분석과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같이 사용할 필요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7월부터 한국 외환보유액 적정성에 대해 과거에 적용했던 지표 적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7월 IMF가 발표한 대외부문보고서에서는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작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IMF의 적정 외환보유액 비중 기준에 대해 소규모 신흥국 대상을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편집 문윤아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